**영화 ‘더 플랜’ 시청 후기 토론 보고서**

**<컴퓨터에 대한 맹신의 문제점과 극복방안>**

13012002 교육학과 오정은

**Ⅰ. 문제점**

영화 ‘더 플랜’은 컴퓨터에 대한 맹신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누군가에 의해 모든 것이 쉽게 조작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해보자면, 기계로 인해 사람들의 정신적 능력이 퇴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알코올로 인해 정신적 능력이 감퇴한 것을 ‘알코올성 치매’라고 하는데,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현대인들은 기계에 과도하게 의존함으로써 ‘기계성 치매’를 앓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기계로 인해 모든 것이 자동화되고 간편화되면서 사람들은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전화번호를 핸드폰에 저장해놓기 때문에 가족의 번호조차도 기억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있고, 개인의 사소한 일정들도 머리 속에 담아두지 않는다. 또한 글을 읽는 능력도 퇴화한 경우를 볼 수 있는데, 현대인들은 글을 읽을 때 ‘F’자로 읽는다고 한다. 기계로 인해 찾고자 하는 정보를 너무나도 쉽고 다량으로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긴 글을 읽을 시도를 하지 않는 것이 익숙해져 글의 첫 줄과 둘째 줄을 읽고 시선을 바로 아래로 쭉 내려버린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새로 접하는 정보에 대해 깊게 사고하는 능력도 점점 퇴화되어간다고 한다. 인간의 몸은 환경에 적응한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기관은 퇴화하기 마련이다. 만약 어두운 곳에서만 살아서 눈을 쓸 필요가 없다면 눈의 기능이 퇴화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기계로 인해 삶이 편리해진 것은 장점이지만, 결과적으로 뇌의 사용이 줄어들어 뇌 기능이 퇴화한 것이다. 물론, 기계로 인해 삶이 간편해진 만큼 다른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문제만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의존하고 있는 기계 자체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개인의 삶과 사회 전체에 큰 혼란이 예상되는 것은 물론이고, 영화에서 본 바와 같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기계를 조작했을 때 단편적으로만 사고하는 것에 익숙해져 조작을 눈치채지 못해 타인에 의해 쉽게 좌지우지되는 삶을 살 수 있다.

**Ⅱ. 극복방안**

사실상 이에 대한 극복방안을 명확하게 떠올리기는 어렵다. 기계의 발달은 막을 수 없고, 인간은 보다 편한 것을 추구하는 본능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스스로 경계하지 않는 이상 기계에 의존하는 영역의 범위는 더욱 더 넓어질 것이며 기계는 개인의 삶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복방안을 제시해본다면, 표면적인 측면에서는 기계의 오류에 대비하기 위해 중요한 정보를 많이 복제해두는 것을 하나의 해결 방법으로 제시할 수 있고, 급속한 기계 발달과 발맞추어 기계 사용에 대한 윤리 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기계에 대한 윤리 교육을 시행하여 해킹과 같은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제시할 수 있다. 윤리 교육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인 정신적 능력 퇴화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교육을 통해 기계와 인간의 필수 영역을 구분하도록 하여 개인이 스스로 기계의 부재상황을 대비하도록 경계심을 심어주고, 기계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 능력도 기를 수 있도록 기계의 한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교육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계가 발달한 만큼 기계를 활용하여 일상생활에서 뇌를 자극하여 뇌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